

7년 연속 최고 경쟁률, 중부권 최고大로 우뚝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입학홍보과



강만길 총장 ▲

맑은 대학, 푸른 교육을 지향하는 상지대학교는 지난 4월 개교 40주년을 맞아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시민대학을 향해 도약하고 있다.

상지대학교는 중장기발전계획인 GENS21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개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학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상아탑을 위해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다. GENS21은 Glocalization(세계화 속의 지역화), Environmental(친환경주의), Network(유기적 조직체), Sangji(상지대)의 머릿글자와 21세기를 합성한 조어로 지역에 굳건

히 발을 디디고 환경을 중시하며 유기적 조직체로서 미래를 향해 달리는 상지인이 되자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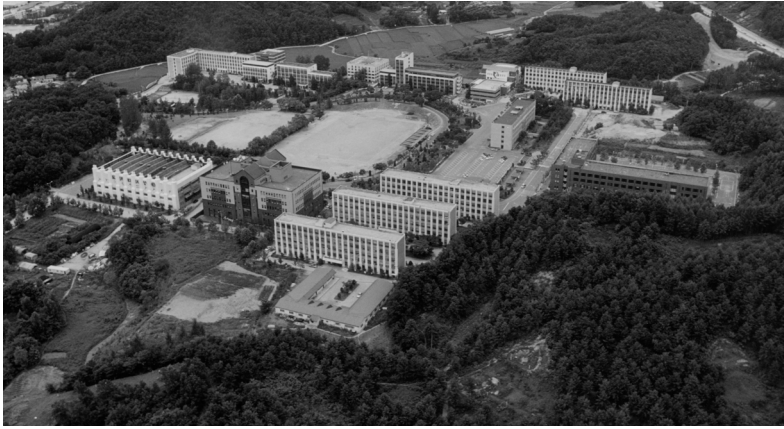
상지대는 구제단과 벌여 온 학원민주화 싸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보주의 선명성을 확보했고 학생, 교직원, 교수 등 구성원 모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등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상지대는 1997년부터 7년 연속 강원도 및 중부내륙권 대학 가운데 최고 경쟁률을 기록해 대학 신입생들에게 가고 싶은 대학으로 우뚝섰으며, 올 입시에서도 이 같은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04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는 지역출신 비율을 20%로 늘려 명실상부한 지역대학으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교 40주년을 맞은 상지대의 역사와 미래 청사진을 알아본다.

■ 되돌아본 상지 40년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조건과 충북, 경북, 경기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상권의 요지인 원주에



상지대학교 전경 ▲

고등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요청에 따라 고 원홍목 선생이 1962년 재단법인 청암학원을 등록하고 4년제 정규대학인 원주대학을 설립한 것이 상지의 출발이다.

1974년 청암학원은 학교법인 상지학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 출발했으며, 1988년 지역의 낙후된 의료시설과 의료진 양성의 필요성에 따라 강원도 유일의 한의예대를 신설했다. 또 이듬해인 1989년에는 종합대학으로 승격,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한평생을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김찬국 박사가 관선이사진 체제의 총장으로 부임해 대학본연의 임무인 교육 연구 봉사 기관으로서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었고, 민주적 절차를 거친 총장 선출은 대학교육의 본질인 민주성을 구성원 스스로가 실천했다는 점에서 교육사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상지대는 김총장에 이어 제2대 민주총장으로 한완상 박사를 선출해서 안정된 대학운영을 이룩하고, 구성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 성공회대, 한신대와 민주대학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

적, 물적 교류를 시작하여 한국 민주사학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학생 중심으로 교육편제를 개편하고 학생복지시설로 학생회관 건립, 남학생기숙사, 한의학관, 자연과학관을 신축하는 등 시설부문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환경주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상지대는 지역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해 젊은 대학, 비전 있는 민주대학으로 거듭나 21세기 명문대로 도약하고 있다.

■ 민주적 대학운영

상지대의 최대 강점은 민주적 학사운영과 투명한 재정운영이다. 학생대표, 교직원대표, 교수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지학원 구성원 대표자회의가 대학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되었으며, 위원회에 따라서는 학생대표와 교직원대표가 참여하는 행정이 이루어진다.

예산과 결산은 주요 일간지를 통해 구성원과 대외에 공개하며, 회계처리결과 또한 회계법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 교수 채용도 엄



시민대학 추진 ▲

격한 방식을 도입하여 기초심사, 전공심사, 발표, 면접 등을 단계별로 치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항목을 계량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총장 추대 과정에서는 교수, 학생, 교직원 동문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총장추대위원회에서 총장을 추대해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과정을 밟아 전국 대학 가운데 민주적 총장선출 대표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더욱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학생들이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듣고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합의하고 예산사용내역이 공개되어 학생들이 등록금을 얼마 냈고 교수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아가는지 등의 내용이 다 알려진다. 상지대는 조만간 예결산위원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의결권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 시민대학 추진

상지대가 전국대학 가운데 최초로 추진 중인 시민대학은 각계로부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시민대학은 법적으로는 사립대학이면서 내용적으로는 특정인의 독단과 전횡이 근본적으로 차단된 대

학을 말한다. 국공립대와 다름없이 교육의 공공성이 실현되고 시민사회가 대학의 구성주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대학을 일컫는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사립대학이 설립자 또는 이사장 1인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서는 대학발전을 위한 재정보호는 물론 대학발전에 필요한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조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구성원들은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전환하여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대학으로 운영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상지학원의 민주적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밖으로는 대학발전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시민대학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시민대학은 각계각층의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등의 방식을 통해 가장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시민대학운영협의회를 통해 대학운영의 총론을 결정하고 이 중에서 일부 인사가 대학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일정 기간 대학을 운영하게 된다. 시민대학추진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나서 2003년 9월 말 현재 각



재학생 1인당 1PC 사용 ▲

계로부터 18억3000여만 원을 모아 사업추진의 탄력을 얻고 있다.

■ 교육환경 개선

상지대는 지난 10년간 임시이사체제에서 유능한 교원과 직원을 충원하여 민주대학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1992년 144명에 불과했던 교수를 올해에는 210명으로 늘려 교육의 질을 한층 높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강의동을 신축하고 학생회관을 증축했다. 부족한 실험실과 교육시설 보강을 위해 자연과학관, 한의학관, 남학생기숙사를 신축하고 있다.

또 수요자 중심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교양과목을 다양화하고 학내 전산망을 확충, 재학생 1인당 1컴퓨터 사용을 가시화하고 있다. 지역민들을 위해 평생교육원, 농업과학교육원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봉사대학으로 이미지를 전환하고 있다.

상지대는 시설 개선과 함께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폭을 매년 늘려 32%가 각종 장학금을 받아 2002년에는 전체 학생 가운데 4,306명에게 39억여 원을 지급하여 학업의욕을 북돋웠으며, 이 같은 수혜폭을 해마다 늘리고 있다.

■ 상지대는 신진보의 산실

상지대는 대외적으로 신진보주의 대학으로 성가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학교 이미지는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의 국정 사회참여로 이어져 실용주의 학풍으로 인정받고 있다. 교수 재직 중 자리를 옮긴 서동만 국정원 기조실장은 임명 과정에서 친북 시비에 휘말릴 정도로 진보성을 주목받았으며, 강만길 총장, 김찬국, 한완상 전 총장을 비롯하여 정대화, 김정란, 홍성태, 조석곤, 박정석, 김인재 교수 등은 진보 성향의 학자로, 활동가로 두드러진 활약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상지대를 특징짓는 것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젊은 교수진이다. 교수 평균연령은 45세로 젊은 교수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가 개혁적인 성향으로 운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한신대, 성공회대와 함께 구성된 민주대학 컨소시엄은 이 같은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상지대 교수들은 여타 대학에 비해 우수한 교원보장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연구와 강의가 가능하여 소신 있는 활동으로 보다 효율적인 학문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대학
교육